

『日本書紀』에 보이는 古代韓國漢字文化의 影響

『日本書紀』に見える古代韓国の漢字文化の影響

저자 (Authors)	森博達
출처 (Source)	목간과문자 6 , 2010.12, 93-105 (13 pages) Wooden Documents and Inscriptions Studies 6 , 2010.12, 93-105 (1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목간학회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Wooden Document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62445
APA Style	森博達 (2010). 『日本書紀』에 보이는 古代韓國漢字文化의 影響. 목간과문자, 6, 93-10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2 14:5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日本書紀』에 보이는 古代韓國 漢字文化의 影響

森 博達*

- I. 序頭에
- II. 『日本書紀』 區分論
- III. 특수한 異體字 「ㄹ」
- IV. 俗體字 「善」
- V. 古韓音系 가나(假名)
- VI. 辰韓과 百濟의 漢字文化
- VII. 吏讀的 表記의 「中」과 「以」
- VIII. 終結辭 「之」
- IX. 끝으로

〈국문 초록〉

『日本書紀』(30卷, 720年撰)는 표기의 성격에 따라 α群 · β群 · 卷30의 셋으로 나뉜다. β群(卷1~13 · 22~23 · 28~29)은 和化漢文으로 쓰여져 있는데, 한반도의 한자문화와 공통되는 특징을 보인다. 본고는 『日本書紀』에 보이는 한반도의 한자문화의 영향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① 「高句麗廣開土太王碑」와 「埼玉稻荷山鐵劍銘」에 나오는 音譯漢字 「ㄹ」字는 「氏」의 이체자로, 중국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日本書紀』의 본문에는 한반도의 지명이 쓰이고 있으며, 歌謠(全 128首)에서 「ㄹ」字가 11例 나타나는데, 모두 β群에 분포한다.

② 新羅碑文에 나오는 「善」字는 生僻字로, 중국의 『龍龕手鑑』에 의하면 「道」字의 異體字(俗體)이다. 『日本書紀』에서는 α群의 본문에 3例가 쓰이고 있는데, 그 중 卷19 「欽明紀」의 1例는 百濟聖王의 發話 중에 나타나는 것으로 百濟系의 史料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있다.

* 日本 京都産業大學 教授

③ 소위 「推古期遺文」에는 古韓音系の 萬葉假名가 다수 나타난다. 「奇」·「移」를 각각 「ガ」·「ヤ」의 ア列音의 표기로, 그리고 「至」·「支」를 각각 「チ」·「キ」의 표기로 사용한 것은 前漢 이전의 중국 上古音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예들은 『日本書紀』의 百濟 관계 기사에도 많이 나타난다.

④ 중국의 正史에 따르면, 辰韓에서는 秦代의 고풍스러운 漢語를 사용하였고 百濟도 辰韓의 遺俗을 이어받아 고풍스러운 漢語를 섞어 썼다고 한다. 한자음도 일부분은 上古音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古韓音」이며, 『日本書紀』의 한반도 관련 기사에 나타나는 借字表記나 「推古期遺文」의 일부 假名の 기초가 되었다.

⑤ 고대 일본의 문장에는 處格的 「中」, 具格的 「以」, 終結辭 「之」 등 이두적인 표기가 보인다. 『日本書紀』에는 處格的 「中」字가 3例, 具格的 「以」字가 10例 보이는데, 주로 β群에 편재하고 있다. α群에는 각각 1例밖에 사용되지 않으며, 모두 卷25 「孝德紀」의 詔勅에 나타난다. 사실 「孝德紀」의 詔勅은 後人에 의해 加筆된 부분으로, α群 본래의 述作者에 의한 표기라 할 수 없다.

⑥ 終結辭 「之」字는 『日本書紀』에 모두 232例 나타나는데, 그 중 216例가 β群에 偏在한다. 그것은 β群이 和化漢文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α群에는 15例, 卷30에는 1例 나타나는데, α群의 15例 중 5例는 後人에 의해 加筆이 이루어진 것이며, 2例는 原史料가 그대로 反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8例 중 7例는 모두 百濟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관계 기사로, 百濟의 史料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 핵심어 : 日本書紀區分論, 異體字, 古韓音, 辰韓, 吏讀, 終結辭, 百濟史料

I. 序頭에

古代 日本은 中國뿐만 아니라 한반도 漢字文化의 큰 影響을 받았다. 本稿에서는 漢字·漢語의 字形·字音·字義·語法의 각 要素에 관한 韓日 共通의 특수한 用법을 概觀하는 동시에, 『日本書紀』(30卷, 720年撰)에서 볼 수 있는 한반도 한자문화의 影響에 대하여 『日本書紀』 區分論의 觀點과 결부시켜 論議하고자 한다.

II. 『日本書紀』 區分論

『日本書紀』(720年撰)는 고대의 역사와 언어를 알기 위한 寶庫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述作者나 編修過程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筆者는 그 音韻·文章·編修過程을 연구하여, 『日本書紀』의 수수께끼를 풀

다-述作者는 누구인가-』(1999년, 中公新書 1502)를 著述하였다. 結論은 다음과 같다.

『日本書紀』 30卷은 表記의 성격에 따라 α군(卷14~21·24~27), β군(卷1~13·22~23·28~29), 卷30의 셋으로 나누어진다. α群은 持統朝(687~696)에 續守言(쇼쿠 슈겐)과 薩弘恪(사츠 고후카쿠)가 正音·正格 漢文으로 述作하였다. β群은 文武朝(697~707)가 되어 山田史御方(아마다노후히토 미카타)가 倭音·日本式 漢文으로 撰述하였다. 卷30은 元明朝(708~714)에 紀朝臣清人(기노아소미 기요히토)가 撰述하고, 동시에 三宅臣藤麻呂(미야케노오미 후지마로)가 α, β군에 걸쳐 漢籍에 의한 潤色을 加하였다. 清人(기요히토)의 述作은 倭習이 많지 않았지만, 藤麻呂(후지마로)가 加筆한 글에는 倭習이 두드러졌다.

즉, 中國인이 正音·正格 漢文으로 α群을 述作하고, 다음에 倭인이 倭音·日本化된 漢文으로 β群을 계속 써내려가고, 다시 최종 단계에서 卷30의 述作에 潤色 加筆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필자의 견해는 일본 국어학계에서 거의 定說이 되어, 역사학계에 浸透되어 왔다.

필자가 β군의 執筆者로 推定하고 있는 文章博士 山田史御方(아마다노후히토 미카타)는 倭인이지만, 젊은 시절 新羅에 유학하여 신라의 한문과 불교를 배웠다. 또 山田史는 『新撰姓氏錄』에는 「諸蕃」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祖上이 한반도에서 도래하여 일본에 귀화한 氏族인 것이다. 그 성씨는 一族의 거주지인 河內國 交野郡 山田郷이란 지명에 由來한다.

山田史御方の 태생과 경력을 생각해보면, β군의 문장은 고대한국 언어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日本書紀』의 한반도 관련 기사 등은 百濟系 史料에 의해 述作된 것도 있다. 全卷을 통하여 한반도 한자문화의 영향을 檢討해볼 필요가 있다.

Ⅲ. 특수한 異體字 「弓」

『日本書紀』(以下 필요시 “書紀”로 줄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書紀 이외의 文字資料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β群을 보다 깊이있게 알기 위해서는 日本化 漢文에 대한 연구에 파고들어야 한다. 현재 埼玉 稻荷山 古墳에서 출토된 鐵劍의 銘文(472年?)으로 한반도의 金石文과 書紀 β군의 공통점을 살펴보자(銘文에는 다음과 같이 句讀點을 붙이고, 인명과 지명에는 밑줄을 그었다).

(表) 辛亥年七月中記, 乎獲居臣, 上祖名意富比垝, 其兒多加利足尼, 其兒名ㄹ已加利獲居, 其兒名多加披次獲居, 其兒名多沙鬼獲居, 其兒名半ㄹ比,
 (裏) 其兒名加差披余, 其兒名乎獲居臣, 世々爲杖刀人首, 奉事來至今, 獲加多支鹵大王寺在斯鬼宮時, 吾左治天下, 令作此百練利刀, 記吾奉事根源也.

우선 명문에 보이는 人名 ‘ㄹ已加利獲居’, ‘半ㄹ比’의 ‘ㄹ’字에 대하여 검토해보자.

「ㄹ」字는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熊本縣 江田船山 鐵刀의 銘文에도 ‘典曹人名无利ㄹ’로 나타나고 있다. 고대 일본에서는 「ㄹ」字는 テ(te)의 만요가나(萬葉假名)의 常用字로서, 「氏」의 異體字로 看做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遼나라의 『龍龕手鑑』(997年)에 처음으로 「ㄹ」字가 게재되어 있지만, 「互戶二音」으로 되어 있어 분명히 「氏」字와는 다른 글자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高句麗 廣開土大王碑(414年)에 「ㄹ」字가 발견된다. 제1면과 제3면의 ‘幹ㄹ利城’이 바로 그것이다.

書紀에는 本文과 歌謠의 가나(假名)로 쓰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歌謠의 用例이다. テ(te)는 「氏」로도, 「ㄹ」로도 쓰이고 있지만, 「ㄹ」는 卷3 「神武紀」(7例)와 卷22 「推古紀」(4例)에만 나타난다. 모두 β군에 있다. 중국인이 述作한 것으로 추정되는 α군에서는 「氏」를 쓰고, 「ㄹ」는 쓰이지 않고 있다.

한편 書紀의 본문에서는 한반도의 地名으로 쓰이고 있다. 卷27 「天智紀」 2年 9月條에 ‘ㄹ禮城’(2例) · ‘ㄹ禮’ · ‘牟ㄹ’가 있다. ‘ㄹ禮’는 경상남도, ‘牟ㄹ’는 전라남도의 地名인 듯하다. 다만, 한반도 관련 기사에서도 卷9 「神功紀」의 인명은 ‘久氏’로 되어 있다. 가요와는 달리, 書紀 본문은 原史料의 영향 또는 後人의 가필일 경우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ㄹ」字는 원래 한반도에서 보급된 「氏」의 異體字였으나, 倭에 소개되어 일찍이 稻荷山 鐵劍이나 江田船山 鐵刀의 명문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 정착되어 고대일본의 常用 가나(假名)이 되어 正體字 「氏」를 압도했을 것이다. 일반 중국의 字書에는 「ㄹ」는 「氏」의 이체자로도 掲載되어 있지 않다. 이리하여 일본에서는 「ㄹ」字를 國字로 간주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IV. 俗體字 「善」

다음으로 신라의 비문에 나타나는 「善」字에 대하여 검토해보자. 다음의 3例가 있다.

- 「迎日冷水里新羅碑」
別教, 末雛 · 申支此二人, 後莫更善此財. 若更善者, 教其重罪耳.
- 「浦項中城里新羅碑」
使人果西牟利白, 口若後世更善人者与重罪.

「導」字은 본래 僻字로서 중국의 古字書類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龍龕手鑑』(997年, 遼·行均撰)
口部上聲「導, 俗, 音道」
- 『集韻』(1037年, 北宋·丁度等撰)
上聲皓韻·杜皓折「導, 說也, 通作道」

또한 『高麗大藏經』《K-1001, 7.5.3 (30.218.2.3)》에 다음의 예가 보인다(李圭甲編 『高麗大藏經異體字典』, p.1085에 의함).

汝自導者, 誰爲證知.

위에 열거한 예들에 의하면, 「導」字은 「道」字의 異體字(俗體)로서 의미는 動詞「說」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金永萬 「迎日冷水里新羅碑文의 文章分析 試考—吏讀的 要素는 얼마나 되는가—」(『口訣研究』第18輯, 2007年)에 의하면, 『中華字解』(2000年, 友誼出版社)에서 隋·楊居의 墓誌에서의 「導」字 用例를 들었으며, 또한 『吐魯番出土文書』第二冊(1981年, 北京·文物出版社)에 의거하여 「阿斯塔那 169號墓文書」의 『孝經』筆寫本에 ‘~非先王之法言, 不敢導’라는 「導」字의 用例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 「導」字은 『日本書紀』에도 다음의 세 예가 쓰이고 있다.

- ① 卷14 「雄略紀」元年 3月 ‘天皇曰, 見此者咸言如卿所導.’
- ② 卷15 「顯宗紀」即位前 ‘億計王惻然歎曰, 其自導揚見害孰與全身免厄也歟.’
- ③ 卷19 「欽明紀」2年 4月 ‘聖明王曰, (中略) 別汝所導, 恐致卓淳等禍, 非新羅自強故, 所能爲也.’

書紀의 세 예는 모두 ‘이야기하다’(話す)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 중에서 특히 ③의 예가 흥미롭다. ③은 任那 復興을 둘러싼 百濟 聖明王(聖王)의 長文의 발언으로, 백제계 사료에 기초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V. 古韓音系 가나(假名)

第Ⅲ節에서 埼玉 稻荷山 鐵劍銘을 인용하였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인명과 지명이 音譯 表記되어 있

다. 그 중에는 일부를 普通名詞로 還元하면 解讀할 수 있는 것이 있다. ‘乎獲居’(ワワケ wowake), ‘意富比坵’(オホヒコ ohohiko), ‘足尼’(スクネ sukune), ‘獲加多支鹵’(ワカタケル wakatakeru) 등 5례가 있다.

이것은 吳音系로 오래된 古韓音系の 만요가나로 볼 수 있다. 특히 「居」(ケ ke)나 「坵」(コ ko)는 吳音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大矢透 『假名源流考及證本寫眞』(1911年)은 古代 韓音を 周秦音과 漢魏兩晉音으로 兩分하고 있다. 古韓音系の 만요가나는 후에 소위 「推古期遺文」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天壽國曼茶羅繡帳」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가 있다.

巷奇(蘇我・ソガ sogā) 多至波奈(橘・タチバナ tachibana) 等已彌居加斯支移比彌(豊御食炊屋姫・トヨミケカシキヤヒメ toyomikekashikiyahime)

이 중에서 밑줄친 부분의 가나(假名)는 隋唐時代의 中古音(『切韻』音系)이 아니라, 前漢 이전의 上古音에 의거하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다. 「奇」, 「移」의 韻母는 上古音 歌部・中古音 支韻에 속하며, 이것들을 「ガ」(ga), 「ヤ」(ya)처럼 ア(a)列音으로 사용하는 것은 上古音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至」・「支」의 聲母는 中古音 章母에 속하며, 이것들을 각각 「チ」(ti>chi)와 「キ」(ki)로 사용하는 것은 上古音에 근거한 것이다.

上古音에 근거한 가나(音譯漢字)는 『日本書紀』의 百濟 관련 기사에서도 나타난다. 卷19 「欽明紀」 15年 12月 百濟上表文中에서 예를 들어보자.

任那諸國旱岐等奏, 以新羅無道, 不畏天皇. 與狇同心欲殘滅海北彌移居. 臣等共議, 遣有至臣, 帥軍以六月至來.

밑줄친 부분의 音譯表記에 대하여 말하면, ‘旱岐’는 國王의 稱號로 「カンギ」(kangi)로 읽을 수 있지만, 『梁書・新羅傳』에는 ‘旱支’로, 新羅碑文에는 ‘干支’로 표기되어 있다. ‘旱支’와 ‘干支’의 「支」는 上古音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彌移居’는 官家의 의미로 「ミヤケ」(miyake)로 읽는다. ‘有至臣’은 內臣의 의미로 ‘有至’는 「ウチ」(uchi)로 읽는다. 「移」와 「至」가 각각 「ヤ」(ya)와 「チ」(ti>chi)에 해당되는 것은 上古音에 근거한 것이다.

上古音은 狹義로는 『詩經』(紀元前 6世紀頃編) 등의 音韻體系이고, 廣義의 上古音과 中古音의 境界는 거의 前漢과 後漢의 境界에 있다. 그렇다면 왜 前漢 이전의 上古音이 후세에 百濟系 史料 등의 古韓音에 반영되어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辰韓과 百濟의 漢字文化를 조사해보아야 한다.

VI. 辰韓과 百濟의 漢字文化

고대 한반도 남부에 三韓이 있었다. 馬韓·辰韓·弁韓(弁辰)이다. 이 辰韓에 대하여 『三國志』와 『後漢書』에 기묘한 記事가 있다. 辰韓은 中國 秦代에 亡命해온 中國人의 나라였고, 言語는 秦代의 중국어와 닮았다. 그 때문에 辰韓은 秦韓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과연 이 正史의 기록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三國志·魏書』卷30 「烏丸鮮卑東夷傳」辰韓條의 기사를 보자.

辰韓在馬韓之東。①其耆老傳世，自言古之亡人 避秦役 來適韓國，馬韓割其東界地與之，有城柵。②其言語不與馬韓同。名國爲邦，弓爲弧，賊爲寇，行酒爲行觴，相呼皆爲徒。有似秦人，非但燕齊之名物也。③名樂浪人爲阿殘。東方人名我爲阿，謂樂浪人本其殘餘人。④今有名之爲秦韓者。始有六國，稍分爲十二國。

①는 辰韓 古老의 傳承으로, ‘자신들의 선조는 秦나라의 勞役을 피하여 韓國으로 온 逃亡者로 馬韓이 그 동쪽 토지를 나누어준 것이다’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辰韓의 선조는 秦代에 멸망해 이주해온 中國人이라는 것이 된다.

②, ③, ④는 辰韓의 언어에 대한 기술이다.

②그 언어는 馬韓과 같지 않다. 國을 邦, 弓을 弧, 賊을 寇, 行酒(술을 돌려 마시는 것)를 行觴이라고 하며, 서로 ‘徒’로 부른다. 秦나라 사람과 닮은 부분이 있으나, 燕·齊의 언어뿐만 아니다.

③樂浪 사람을 ‘阿殘’으로 부른다. 東方 사람은 자신을 ‘阿’로 부르며, 樂浪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의 殘餘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④지금 辰韓을 秦韓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辰韓에서는 漢字語를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日常會話에 中國語를 상용해왔다는 것은 단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辰韓 十二國의 國名은 已柢國·不斯國·勤耆國·難弥理弥凍國·冉奚國·軍弥國·如湛國·戶路國·州鮮國·馬延國·斯盧國·優由國이다. 이들은 漢字語가 아니고, 辰韓의 언어를 漢字音譯한 것이다. 또 辰韓·弁韓의 各國 渠帥(指導者)의 名稱이 그 勢力의 순서대로 ‘臣智·險側·樊濊·殺奚·邑借’라고 記載되어 있다. 이들도 대부분 音譯語일 것이다.

한편, 馬韓에서는 長帥(指導者)의 우두머리를 ‘臣智’, 다음을 ‘邑借’로 부른다. 辰韓의 渠帥와 같은 名稱이다. 따라서 辰韓에 대해 ②‘그 言語는 馬韓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설명은 그대로 인용할 수 없다.

아마도 辰韓에서는 馬韓보다 漢字文化가 빠르고 깊게 침투한데다, 더욱이 近接한 中國의 燕·齊와는 相異한 漢語가 두드러졌을 것이다. 그것이 ②記事의 배경이다. 실제로 國·弓·賊·行酒에 비하여 辰韓에서 사용되던 邦·弧·寇·行觴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用語이다. 예를 들면, 『三國志』 전체에서 ‘行酒’는 11번 사용되지만, ‘行觴’은 이 예를 포함하여 2例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國을 邦이라 함’이 ‘秦나라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邦」은 漢 高祖 劉邦의 諱이며, 漢代에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戰國 시대부터 秦代까지 ‘相邦’으로 불리던 宰相은 漢代 이후 ‘相國’이 되었다. 이렇듯 三國時代가 되어서도 國을 邦이라고 말하는 辰韓은 秦나라 시대의 古風스러운 漢語를 사용하는 종족으로 생각된 것이다. 게다가 ‘先祖는 秦나라의 勞役을 피해 韓國으로 온 逃亡者’라는 傳承까지 더해져 秦韓이라 일컬어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辰韓(秦韓)의 漢字文化는 馬韓이나 百濟에도 浸透한 것으로 보인다. 『梁書·東夷傳』百濟條에는 ‘今, 言語服章, 略與高麗同’이라고 말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呼帽爲冠, 襦曰複衫, 袴曰禪. 其言參諸夏, 亦秦韓之遺俗云.【帽(머리에 쓰는 것)를 冠이라 하고, 襦(상의의 일종)를 複衫이라고 하며, 袴(하의)를 禪이라고 한다. 이 言語는 中國語가 섞여 있지만, 이것 또한 秦韓의 遺俗인 것이다.】

이 記事가 南朝 梁代의 百濟 漢字語를 正確하게 記述했다고는 斷言할 수는 없다. 그러나 ‘秦韓의 遺俗이다.’라고 한 것은 一般 中國語와는 차이가 있는 古風스러운 漢字語로 느껴졌기 때문이리라.

百濟는 372년에 東晉에 朝貢하고, 그 이후 南朝의 漢字文化가 傳來하였다. 그러나 馬韓地域은 그 이전부터 北方의 古風스러운 漢字文化가 定着되어 있었다. 漢字에는 形·音·義의 三要素가 있다. 三韓地域에서는 漢字音도 一部는 前漢 이전의 上古音의 性格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所謂 ‘古韓音’이며, 埼玉 稻荷山 鐵劍銘이나 『日本書紀』의 한반도 관련 기사의 音譯漢字, 그리고 ‘推古期 遺文’의 일부 單語가나의 基礎가 된 것이다.

VII. 吏讀的 表記의 「中」과 「以」

第Ⅲ節에서 引用한 埼玉 稻荷山 鐵劍銘은 ‘辛亥年七月中記’로 시작한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熊本縣 江田船山 鐵刀의 銘文에도 ‘八月中’이라는 表現이 있다. 이 「中」字는 處格(~에)를 표현한 吏讀的 表記이다. 高句麗 「城壁刻書」(446年?)에도 ‘丙戌十二月中’이라는 表記가 있고, 新羅 碑文에도 多數 發見되었다. 이 「中」字의 用法은 『日本書紀』에 다음 3例가 나타난다.

- ① 卷9 「神功紀」 46年 ‘甲子七月中, 百濟人久氏——’(卓淳王의 말)
- ② 卷10 「應神紀」 13年 ‘秋九月中, 髮長媛至日向.’
- ③ 卷25 「孝德紀」 ‘於磯城鳴宮御宇天皇十三年中.’(大化 元年의 詔)

①②는 β群, ③은 α群인데, 卷25 「孝德紀」의 大化 詔勅은 後人에 의해 加筆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의 「御字」라는 용어는 α群의 기본적인 述作이 행해진 持統朝가 아니라, 文武朝 701년에 실행된 『大寶律令』 이후의 용어이다.

『日本書紀』에는 이 밖에도 「以」·「在」·「賜」·「之」 등의 吏讀의 表記도 나타나고 있다. 本節에서 具格의 「以」字를 소개한다. 다음의 10例가 있다. 모두 正格 漢文에는 없는 用法으로 「以」字를 目的語 다음에 두고 있다.

- ① 卷7 「景行紀」 27年 12月 ‘是以, 賤賊陋口以奉尊號」
- ② 卷9 「仲哀紀」 9年 12月 分注 ‘金銀多之眼炎國以授御尊孫’
- ③ 卷11 「仁德紀」 11年 10月 ‘二人以祭於河伯, 必獲塞’
- ④ 卷13 「允恭紀」 7年 12月 ‘天皇命以召之’
- ⑤ 卷22 「推古紀」 17年 4月 ‘百濟王命以遣於吳國’
- ⑥ 卷23 「舒明即位前紀」 ‘天皇命以喚之’
- ⑦ 卷25 「孝德紀」 大化2年 正月 (詔勅) ‘每五十戶一人以宛諸司’
- ⑧ 卷29 「天武紀下」 9年 5月 ‘勅, 絁綿絲布以施于京內廿四寺’
- ⑨ 卷29 「天武紀下」 14年 12月 ‘絁綿布以施大宮大寺僧等’
- ⑩ 卷29 「天武紀下」 14年 12月 ‘皇后命以, 王卿等五十五人賜朝服各一具’

이들 10例는 ⑦ 이외는 모두 β群에 속한다. ⑦은 卷25 「孝德紀」의 詔勅이며, 前述한 대로 「孝德紀」의 詔勅은 後人에 의한 加筆로서 α群 述作者의 責任은 아니다.

VIII. 終結辭「之」

대표적인 吏讀에 終結辭의 語氣助詞 「之」字가 있다. 한 예를 들어본다.

- 高句麗 「廣開土太王碑」(414年) ‘買人制令守墓之.’

‘墓’는 動詞 ‘守’의 목적어이며, 「之」字는 終結辭로 볼 수밖에 없다.

吏讀文이나 俗漢文에 많이 쓰이는 終結辭의 「之」字는 正格漢文으로서는 奇用(特殊한 用法)이지만, 본래 중국에서 ‘虛化한 形式 目的語’의 「之」字로부터 독자적으로 발달해온 것으로 추측된다. 고대 일본의 金石文에도 다음과 같이 終結辭로 추정되는 「之」字를 볼 수 있다.

• 太安万呂墓誌銘(722年) ‘以癸亥年七月六日卒之’

『日本書紀』에도 終結辭로 볼 수밖에 없는 「之」字가 多數 쓰이고 있다. 이 문제는 拙稿 「日·韓 俗漢文의 世界—『日本書紀』 區分論과 終結辭의 「之」字—」(2009년 6월,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 『고대 문자자료로 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소통』 所收)에서 논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概要를 소개한다.

『日本書紀』의 문장 중에서 終結辭라 해석할 수밖에 없는 「之」字를 이 용법에 의하여 A~I의 9종류로 細分하여 각각 한 例씩 들어본다.

- A. 体言+之(体言 述語文+之, 目的語+之): 卷6 ‘清彦生田道間守之.’
- B. 形容詞 述語文+之: 卷1 ‘吾心清清之.’
- C. 移動의 自動詞+之: 卷12 ‘故三人扶太子, 令乘馬而逃之.’
- D. 停止의 自動詞+之: 卷2 ‘乃就樹下立之.’
- E. 生老病死的 自動詞+之: 卷22 ‘來目皇子薨之.’
- F. 天候·自然現象의 自動詞+之: 卷22 ‘桃李實之.’
- G. 精神活動의 自動詞+之: 卷12 ‘太子到河內國埴生坂而醒之.’
- H. 表現의 自動詞+之: 卷13 ‘畏有罪而默之.’
- I. 其他의 自動詞+之: 卷29 ‘五穀不登, 百姓飢之.’

A~I를 정리해보면, 각 권에서의 終結辭 「之」字의 分布는 [표1]과 같다.

[표1] 『日本書紀』에서의 終結辭 「之」의 분포
(總 232例 中 β群: 216例, α群: 15例, 卷30: 1例)

語句	群	β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之」	全例	37	76	31	4	20	30	45	9	39	21	33	20	25
「之」	終結	4	9	2		8	10	24	4	12	8	12	4	11

α								β		α				β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2	6		35	6	8	60	33	5	31	5	1	54	103	19
1	2		1		5		3	28	17	2	1			17	46	1

文末「之」字의 終結辭 用例는 총 232例. 그 중에서 β群에 216例, α群에 15例, 그리고 卷30에 1例가 발견되었다. 『新訂增補 國史大系本』(吉川弘文館) 1페이지 당 出現頻度는 β群 0.50, α群 0.06이다. 즉 終結辭「之」字의 出現 比率는 β群이 α群의 약 8.3배에 달한다. β群에의 偏在는 豫想한 대로였다. β群은 기본적으로 일본식 한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之」字의 특수한 용법은 α群에도 15例가 僅少하지만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正格漢文으로 쓰여있어야 할 α群에 왜 이렇듯 예외가 나타나는 것일까. 검토 결과, α群의 예외 15例 중에서 5例는 後人의 加筆이며, 2例는 原史料를 반영한 것이다. α群 본래의 述作者의 책임은 아니다. 남은 8例는 다음과 같다.

- ① 卷17「繼體紀」9年 2月·百濟 外交 ‘仍勅副物部連遣罷歸之.’ C
- ② 卷19「欽明紀」2年 7月·百濟外交 ‘來奏下韓任那政, 并上表之.’ A
- ③ 卷19「欽明紀」4年 4月·百濟外交 ‘百濟紀臣奈率彌麻沙等罷之.’ C
- ④ 卷19「欽明紀」4年 4月·百濟外交 ‘表奏如此, 尚未成之.’ I
- ⑤ 卷19「欽明紀」5年 3月·百濟聖明王 上表文 ‘至於卓淳, 亦復然之.’ B
- ⑥ 卷19「欽明 11年 2月·聖明王 發話 ‘延那斯·麻都之事, 問與不問, 唯從勅之.’ A
- ⑦ 卷24「皇極紀」元年 2月·百濟甲使의 報告 ‘百濟國主謂臣言, 塞上恆作惡之.’ A
- ⑧ 卷24「皇極紀」2年 11月·山背大兄王自殺 ‘吾起兵伐入鹿者, 其勝定之.’ B

⑧ 이외의 7例에는 共通點이 있다. 모두 百濟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관련 기사라는 점이다. 卷19「欽明紀」등은 기사의 태반이 한반도와의 외교관계 기사로 이루어져 있다. ⑤는 百濟 聖明王(聖王)의 上表文 중의 문장이며, ⑥도 聖明王의 發言이다. 물론 聖明王의 上表文이나 發言이 그대로 인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관련된 百濟史料를 이용했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IX. 끝으로

이렇듯 『日本書紀』의 終結辭「之」字의 用法은 吏讀의 終結語尾와 공통적인 것이었다. 區分論의 관점에서 『日本書紀』의 문장과 표기를 검토한다면, 『日本書紀』는 고대 한반도의 漢字文化, 특히 吏讀와 俗漢文의 寶庫로서 크나큰 무대에 등장한 것이 된다. 한국의 학식있는 분들에게 韓國語史의 자료로서 『日本書紀』를 연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투고일 : 2010. 10. 16

심사개시일 : 2010. 10. 20

심사완료일 : 2010. 11. 08

- 金永萬, 2007, 「迎日冷水里新羅碑文의 文章分析 試考-吏讀的 要素는 얼마나 되는가-」, 『口訣研究』 第18輯.
- 南豊鉉, 2000, 『吏讀研究』, 太學社.
- 徐鍾學, 1995, 『吏讀의 歷史的研究』, 嶺南大學校出版部.
- 李基文, 1981, 「吏讀의 起源에 대한 一考察」, 『震壇學報』 52.
- 榎本福壽, 1978, 「『日本書紀』の句法-「以」をめぐる-」, 『國語國文』 47-9.
- 大矢 透, 1911, 『假名源流考及證本寫眞』, 勉誠社.
- 福田良輔, 1934, 「書紀に見える「之」字について」, 『古代語文ノート』, 1964年, 南雲堂桜楓社.
- 森 博達, 1977, 「『日本書紀』における万葉仮名の一特質-漢字原音より觀た書紀区分論-」, 岩波書店 『(月刊) 文学』 45-2.
- _____, 1991, 『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 大修館書店.
- _____, 1999, 『日本書紀の謎を解く-述作者は誰か-』, 中公新書 中央公論新社.
- _____, 2001, 「日本書紀の研究方法与今後の課題」,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06, 大和書房.
- _____, 2003, 「日本書紀成立論小結-併せて万葉仮名のアクセント優先例を論ず-」, 『国語学』, 通卷 214号.
- _____, 2005 a, 「聖徳太子伝説と用明・崇峻紀の成立過程-日本書紀筋記・その一-」,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22, 大和書房.
- _____, 2005 b, 「懷徳堂・五井蘭洲の『刪正日本書紀』に驚嘆する-「日本書紀筋記・その二-」,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23, 大和書房.
- _____, 2005 c, 「文章より觀た『日本書紀』成立区分論-日本書紀筋記・その三-」,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24, 大和書房.
- _____, 2005 d, 「日本書紀の万葉仮名と上代語のアクセント-日本書紀筋記・その四-」,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25, 大和書房.
- _____, 2006, 『일본서기의 비밀』, 심경호 옮김, 황소자리.
- _____, 2009a, 「辰韓の言語について」,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37(終刊號), 大和書房.
- _____, 2009b, 「日韓俗漢文の世界-『日本書紀』區分論と終結辭「之」字-」, 『고대 문자자료로 본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日本書紀』(30巻、720年撰)は表記の性格によって、 α 群・ β 群・巻30に三分される。 β 群(巻1~13・22~23・28~29)は和化漢文で書かれており、韓半島の漢字文化と共通の特徴が見られる。本稿では『日本書紀』に見られる韓半島の漢字文化の影響について論じる。

①「高句麗廣開土太王碑」や「埼玉稻荷山鐵劍銘」には音譯漢字の「亅」字が出てくる。「亅」字は「氏」の異體字であるが、中国では用いられていない。『日本書紀』は本文で韓半島の地名に用いられている。歌謠(全128首)では「亅」は11例用いられているが、すべて β 群である。

② 新羅碑文には「道」字が出ている。「道」は生僻字で、中国の『龍龕手鑑』によれば、「道」字の異體字(俗體)である。日本では『日本書紀』 α 群の本文に3例が用いられているが、そのうち巻19「欽明紀」の1例は百濟聖王の發話の中に現れており、百濟系史料に基づいた可能性がある。

③ 所謂「推古期遺文」には古韓音系の萬葉假名が数多く現れている。「奇」・「移」をそれぞれ「ガ」・「ヤ」としてア列音に当て、「至」・「支」をそれぞれ「チ」・「キ」に当てるのは、前漢以前の中國上古音によるものであり、これらの多くは『日本書紀』の百濟關係記事にも現れている。

④ 中國の正史によれば、辰韓では秦の時代の古風な漢語を用い、百濟も辰韓の遺俗を受けて古風な漢語を交えていたという。漢字音も一部は上古音の性格を留めていたのだろう。それが「古韓音」であり、『日本書紀』韓半島關係記事の借字表記や「推古期遺文」の一部の假名の基礎となった。

⑤ 古代日本の文章には吏讀的な表記がある。處格の「中」、具格の「以」、終結辭の「之」などである。『日本書紀』には處格の「中」字が3例、具格の「以」字が10例現れており、 β 群に偏在する。 α 群には各1例しか用いられず、ともに巻25「孝德紀」の詔勅に現れている。實は「孝德紀」の詔勅は後人による加筆であり、 α 群の本來の述作者による表記ではない。

⑥ 終結辭の「之」字は『日本書紀』には合計232例あり、そのうち216例が β 群に偏在する。 β 群は和化漢文で表記されているからである。残りは α 群に15例、巻30に1例が現れている。 α 群の15例の中、5例は後人の加筆であり、2例は原史料の反映である。残りの8例のうち7例はいずれも百濟を中心とする韓半島關係の記事であり、百濟史料を利用した可能性が高い。

▶ キーワード：日本書紀區分論、異體字、古韓音、辰韓、吏讀、終結辭、百濟史料